

게리 예이츠 박사, 예레미야, 강의 23, 예레미야 38-39,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예루살렘의 멸망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3회, 예레미야 37-39장,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번 강의의 초점은 예레미야서 37-39장이며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장들이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에서 일어난 중심 사건, 즉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신학이 우리를 위해 전개하려는 것은 이번 예루살렘의 멸망은 왕과 백성과 유다 관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큰 신학적 위기는 포로 생활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시편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씨름하고 있는 구절을 봅니다. 시편 89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신학적 메시지는 그것이 백성들의 응답 실패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 26-45장의 의도와 문학적 구조를 보면 예레미야 37-39장이 지난번 27-29장에서 살펴본 구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국가로서

유다의 마지막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의 시대를 다루고 있으며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

여러 면에서 그것은 파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교 바벨론 사람들과 평화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다의 지배권을 넘겨주셨다는 생각이 특히 이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7-29장에서 예언적 갈등의 전체 문제와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다 국가의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거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기회를 거의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적 갈등,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문제들에 관여하는 문제는 예레미야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미가서에서도 우리에게 간략하게 반영됩니다. 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기서 몇 구절을 참조하고 싶습니다.

미가가 예레미야보다 한 세기 전에 설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예레미야 26장은 미가의 설교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히스기야의 회개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소식을 전파하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언약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던 평화의 선지자들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닥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집을 돌보실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 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미가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치욕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주님께서 참을성이 없으시다고 말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의 행위입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런 다음 11절에서 미가는 백성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일 사람이 돌아다니며 바람과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한 설교자가 되리라 하여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나의 심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맥주와 포도주를 넉넉히 주어 마시게 하시리니 너희가 온갖 즐거움과 형통을 누리게 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거짓말과 바람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과 6절에서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미혹하고 평강이라 외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가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선지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자기 입에 아무것도 넣어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에 대한 공허한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좋은 사랑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씨름하고 있었고,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덕분에 701년 예루살렘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며, 예레미야서 26-45장 전체에 대한 중요한 요약 진술인 이 부분을 소개하는 37장 1-2장에서 우리가 읽는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시드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왕으로 세운 요시야가 고니야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좋아요, 그러면 39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예레미야서 52장의 끝 부분에서도 설명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7-39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도시가 무너지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복종하는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 다섯 개의 개별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 27-29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세 번 반복했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의 권위에 항복하라,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가 어떤 반응을 받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개 에피소드의 레이아웃도 특정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패턴을 갖게 될 것인데, 일종의 패널링이 진행되고, A와 B 요소가 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37장 3-5절에는 A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와 대화하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대한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37장 6-10절에는 시드기야 휘하의 군사 관리들과 예레미야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B 요소가 있습니다. 37장, A 요소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교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B 요소는 다시 38장 1-12절에 나오는 군 관리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전쟁 노력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저항을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바빌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장의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끝까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대화하는 A 요소가 다시 나옵니다. 따라서 이 ABABA에서 예레미야와 왕 및 왕실 관리들과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반응의 예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서술적

평행성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시드기야의 불순종한 반응이 36장의 이전 여호야김의 불순종한 반응과 나란히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 37-39장에서 서술적 평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609년부터 597년까지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화를 내고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26장에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는 36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잘라냈습니다. 이제 37-39장에서 시드기야의 반응이 그 바로 옆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597년부터 586년까지 말세의 왕입니다. 그도, 그의 백성도, 시중드는 자도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이 보고 있는 어떤 시기,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어느 시기를 보아도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할 때 그들은 매우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놀랍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와 말씀을 접할 때마다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호야김과 예레미야가 서로 만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들의 관계는 너무 폭발적이다. 예레미야는 이 왕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왕은 그를 붙잡아 우리아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그에게도 행하여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드기야에 오면 매우 다른 종류의 개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선 선지자가 있거나 선지자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그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에게 물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책 초반부에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장 4-1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시도록 말입니다.

32장 1-5절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복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4장 1-7절입니다. 시드기야가 말한 또 다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매번 동일합니다. 이제 34장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편히 죽을 수 있을 것이고, 시드기야에게는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살펴보고 시드기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작성한 다양한 편집자와 편집자를 분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드기야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실제로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동적인 기한을 정하셨고, 궁극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지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시드기야에게 몇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만일 그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항복한다면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상황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너희가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시드기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의 기회를 상실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왕과 끊임없이 이러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과 다릅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생명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종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를 돕기 위해 일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처럼 관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여호야김만큼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항적이고 적대적이며 분노하든지, 아니면 단지 무관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든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불순종이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복음을 거부하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거나, 나에게서 떠나거나, 공손하게 듣고 무시하는 사람이든지 둘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두 번째 패널에 있는 서술적 평행법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의 불순종은 여호야김의 불순종과 평행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37장 3절부터 5절. 시드기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회의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7장, 11장, 14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선지자는 결국 왕이 그에게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왕은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1장 2절에서 배웁니다. 이는 단순히 37장에서 읽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평행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쳐서 싸우나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아마도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대하실 것이며 그분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용기와 도덕적 의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7장으로 돌아와 에피소드에서 그곳의 만남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기회를 그에게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고 아마도 이것이 제가 언급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히스기야와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 성. 그것은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1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대해 가졌던 전통, 곧 하나님이 항상 그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전통을 성취하고 입증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시드기야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실지,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실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와 여호야김의 대화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 당신은 히스기야도 아니고, 요시야도 아니고, 당신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능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왕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선지자를 초대하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왕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히스기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왕과 신하들 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들어보십시오. 부분적으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동기는 사건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군하여 유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유다를 점령하게 되면 우리 땅을 침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도와 이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애굽과의 이 동맹이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이에 대한 가능한 모든 희망적인 해결책을 폭발시킵니다. 이집트인들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 개입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만일 당신의 군대가 나가서 갈대아인 중에 남아 있는 부상자들을 쳐부수면 그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느니라.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몰래 들어가 소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아, 칼데아인들이 그런 짓을 하겠군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설사 큰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글쎄, 이런 종류의 예레미야를 설정합니다. 예레미야와 선지자 이사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야, 여호와께서 이 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산헤립과 그의 군대는 이 도시에 화살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옛날 선지자 들 중 한 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좀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사야는 주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심판뿐인 이류 선지자가 있습니다. Pete Diamond는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상호텍스트 연구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이야기 사이에 분명히 텍스트 간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급 선지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이아몬드가 시사하려는 것은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닮은 이야기 속의 인물은 아시리아 군대의 사령관이자 이교도인 아시리아의 랍사게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이며, 당신이 우리 군대를 대적하는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본문 간 비교한다면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같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앗수르 군대의 사령관인 이교도 랍사게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우리 군대에서 구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이사야 37장 4-9절의 이 구절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을 쳐부수고 애굽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병원에 있는 바벨론 군대의 부상자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불사르리라.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세요. 36장 4-9절입니다.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에 네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보호될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 전쟁의 전략이자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라, 너는 이집트를 신뢰하고 있다. 히스기야도 시드기야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고 이집트인들의 군사적 지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7장에서 랍사게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또한 애굽은 의지하는 자의 손을 찌르는 부러진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을 도울 이 군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부러진 갈대처럼 되어 네 손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 2천 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능히 그들 위에 탈 자를 능히 세울 수 있거든 너희가 내 주의 종들 중 가장 작은 대장 한 사람을 어찌 물리칠 수 있으랴 너희가 애굽에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니 더욱이 내가 여호와와 뜻 없이 이 땅을 멸하려고 올라왔나니 내가 여호와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올라왔음이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괜찮은? 따라서 모든 면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히스기야와 시드기야를 텍스트 간 비교로 비교한다면 예레미야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랍사게와 닮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보라, 너희가 군대를 쳐서 갈대아인을 쳐부수더라도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이 너희를 쳐부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앗수르의 사령관 랍사게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보라 이 싸움을 공평하게 하자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 2천 마리를 주겠다.

말을 탈 수 있는 군대도 부족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이길 것입니다.

랍사게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니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와서 이 백성을 쳐부수라고 나를 보내셨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실 분입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예레미야와 닮은 유일한 사람은 이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시리아 사령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호텍스트의 반전과 핵심은 문제가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열등한 선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교도 사령관의 신학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드기야의 삶에는 히스기야의 반응과 비교할 만한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의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11시에 구출하기 위해 행진하는 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사역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상호텍스트성은 예레미야가 이전에 여호야김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점을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당신은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지금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응답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37장 11절 이하에서 B 요소에 군장교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가 접근하자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났을 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중에서 자신의 몫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아마도 자기가 돌려받은 땅을 구입하는 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32장에서.

그러나 그가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군 관리들이 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비디오 중 하나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읽고 그들을 학살하고 도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귀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행복해야 한다는 이 모든 메시지와 이 모든 생각은 당신이 도망치려고 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그를 제거하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를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투옥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겼습니다. 따라서 A 요소는 왕의 응답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7장 11절부터 15절까지 B에는 예레미야가 군 장교들과 대화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A 요소로 돌아갑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반복하는 내용입니다(37장 16~21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영접하매 왕이 그의 집에서 은밀히 그에게 묻고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나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어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를 감옥에 가두셨나이까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너와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던 너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 갈등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옳다면 왜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유일한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일은 예레미야에게 더 살기 좋은 감옥을 주는 것뿐이다. 군부대원들이 그를 가둔 지하 감옥 대신에 예레미야가 친위대 뜰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빵 한 덩어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지자를 돌보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다면 그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비밀리에 오고 있으며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처럼 이 군 장교들과 그들이 그에게 어떤 짓을 할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선지자를 만나는 A 요소를 가졌습니다. B 요소가 있는데, 군 장교들이 선지자를 만나 그를 투옥하고 그를 반역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왕으로 돌아가서 다음 에피소드인 38장 1-13절에서 예레미야가 군사 장교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경찰관들이 받게 될 반응은 분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왜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합니까? 그들은 이것을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성중에 남아 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다. 라기스 편지에서도 같은 표현이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군 장교들은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저하되었는지 논의하고 그들의 손이 약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약한 지도자로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방백들과 이들 지휘관들을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으니 왕은 너를 해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거기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단지 외국인인 에벳멜렉이라는 관리가 개입하여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외국인,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왕을 설득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해 냅니다. 우리는 Ebed-Melech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는 시드기야의 동요, 관리들의 분노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와 왕 사이의 또 다른 만남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사항만 언급하겠습니다. 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 여호와의 전 제3문에서 그를 영접하니라.

그는 36장과 26장에서 여호야김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그는 왕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으나 다시 물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인지 알 잤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네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을 보전하고 그 성읍이 불에 타지 아니하며 네 집이 살리라

여기서는 if-then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라.

따라서 선택은 귀하의 것입니다. 메시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몇 번이고 말하는 것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37장과 38장에는 세 번의 분리된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우리에게 27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 번의 분리된 시간은 바벨론 왕에게 이러한 다른 그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를 잔인하게 대하는 데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학대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미 인질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유배된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 누군가가 한밤중에 나에게 칼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겁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보다 자신이 잡혀 다른 유대인 포로들에게 넘겨지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게 될 결과와 재앙은 언제나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남자를 무서워해요.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왕에게 할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항복하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환상입니다.

보라,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가는데, 여자들이 이르되,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이 말을 듣자 하더라. 네가 믿었던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이겼다. 이제 당신의 발은 진흙 속에 빠졌으므로 당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그는 시드기야가 체포되고 왕궁의 여인들이 시드기야야,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친구, 동맹자, 장교들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렸고 당신의 발은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표현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장교 들이 예레미야를 진흙 속에 던져 넣었다는 내용과 이 장의 앞부분인 6절에서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읽으면서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흙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알았어, 그건 나빴어. 좋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실제 죄수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보다 상태가 훨씬 더 나빴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진흙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진흙 속에 빠졌으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건질 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려 할 때 예레미야는 풀려난다.

시드기야는 풀려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죄수처럼 시드기야의 발이 진흙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8장의 끝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서로 나누는 마지막 말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은 여기서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이런 종류의 요약 진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시드기야의 반응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36장에서 바룩이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두루마리를 읽을 때 서술자가 한 일을 어떤 면에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왕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이 펼쳐지도록 허용하고 저항이 계속되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9장에서 읽는 첫 번째 진술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의 발을 진흙 속에 빠지게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죄수로서 진흙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예언적 정의가 참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석방될 예정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일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은 37장과 38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결과로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점을 서술자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은 밤에 도망치려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0~15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족쇄에 묶여 시리아 북쪽 립나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를 그들의 꼭두각시로 왕좌에 앉혔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돌보고,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곳의 상황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왕좌에 머물면서 왕인 척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는 통치자로서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반역자로서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처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여 결국 39장에서 소경과 투옥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 소경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삼손의 생애 말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생각나게 됩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들들을 빼앗긴 소경으로 바벨론 포로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던 관원들과 왕, 그리고 감옥이 예레미야의 사역에 그러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여기에 정의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투옥 형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해방자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일을 내린 관리들과 왕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과 방백들과 유다 왕이 바라는 것은 다 결박이 되어 고레스가 이기는 날까지 놓이지 못하리라 바빌론 도시를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세대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장에서 45장까지의 시간을 내레이터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합당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방법을 살펴보며 보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언적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투옥과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박해와 투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섹션 전체를 살펴보고 이전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꽤 우울한 부분입니다. 26장의 각 패널의 시작 부분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생명의 제안은 35장의 레갑 사람들만이 그것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제안이 제시됩니다. 성전 두루마리는 기원전 605년에 읽혔는데,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유일한 사람은 바룩입니다.

덜 중요한 인물로서 예언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긍정적인 예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순종의 긍정적인 예를 살펴보며 이 수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 시드기야와 일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6장에서 45장까지 소개한 몇 가지 긍정적인 예도 기억해 봅시다.

우선 성전 설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방백들과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사형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는 말을 기억하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비극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실제로 반응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26장 24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 우리아를 처형할 때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 이 사반 가문은 예레미야서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심판의 선지자들을 멸절시키려 하는 이때, 증인 중 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다른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왕이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도록 예레미야를 숨깁니다. 사반 집안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서사 가족은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은 주님께 순종하는 긍정적인 모범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시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 바룩은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룩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바룩은 예레미야 못지않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45장에서는 이 마지막에 긍정적인 보상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36장 11절, 바룩이 두루마리를 읽었을 때 일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11절에서는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반 서기관 가족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른 관리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은 와,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을 왕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날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했을 때 적어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왕이 그 두루마리를 없애버릴 때 적어도 몇 명의 서기관과 관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Ebed-Melech를 매우 빨리 소개받았습니다.

38장 7절부터 13절. 이 상황에 개입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 장교가 여기서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를 대표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 에벳멜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인 에벳멜렉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언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세례를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예표한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또 다른 충실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에벳멜렉에게 주신 약속은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에벳멜렉의 생명을 살려준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하기 위해 개입한 사람이 바로 그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내 말이 오늘 네 앞에 응하리라 그러나 그 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을 노략으로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벳멜렉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의 구원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으로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전쟁의 상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군인의 농담을 기억하세요.

전쟁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탈한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우리 목은 구했습니다. 주님은 에벳멜렉에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지자의 생명을 돌본 데 대한 보상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바룩과 예레미야를 구출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구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의 이 부분을 볼 때, 그것은 매우 우울한 시간입니다. 모든 종류의 불순종,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기본적으로 아는 모든 종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 배교의 시대에도, 예언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 너무나 심한 이 시대에도, 이런 사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백들과 관리들이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충실한 서기관이 있습니다. 가족 전통을 충실히 지키는 레갑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배도 가운데에는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서 남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종들의 메시지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3회, 예레미야 37-39장,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